

# 국정원감시네트워크·국정원‘프락치’공작사건대책위원회

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·사회부  
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 (담당 : 참여연대 이은미 간사 010-3341-9189)  
국정원 ‘프락치’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(담당 :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010-2881-8105)  
제 목 [보도협조] 10/7 국정원 ‘프락치’ 사건 관련 국정원 고소·고발 기자회견  
날 짜 2019. 10. 04. (총 2 쪽)

## 보도협조요청서

### 국정원 ‘프락치’ 공작사건 고소·고발 기자회견

전·현직 국정원장, 기조실장,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 
국가정보원법 위반(직권남용) 등 혐의로 형사 고소·고발  
일시 장소 : 2019. 10. 07(월) 01:00,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

#### 1. 취지와 목적

- 언론보도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<sup>1</sup>에 따르면 국가정보원(이하 국정원)은 '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'과 같은 일종의 간첩조작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 경부터 2019년 8월 경까지 약 5년 동안 제보자를 프락치로 이용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해왔고, 사찰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서·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하고, 국가예산으로 유흥비, 성매매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남.
- 이에 사찰피해자들과 국감넷, 대책위는 서훈 현 국정원장, 이병기·이병호 전 국정원장, 전현직 국정원 기획조정실장, 경기지부장, 경기지부 소속 수사관 등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15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(직권남용), 국가보안법 위반(무고·날조),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죄,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국고 등 손실) 혐의 등으로 고소·고발함.

#### 2. 기자회견 개요

-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·고발 기자회견

<sup>1</sup>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제보자와 합의하에 지난 9월 5일, 9일, 10일 3일간에 걸쳐 질의응답 방식으로 제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, 이를 바탕으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함

- 일시 및 장소 : 2019년 10월 7일(월) 오후 1시,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(법원 검찰청 삼거리)
- 주최 : **국정원감시네트워크**(민들레\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,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, 민주주의법학연구회, 진보네트워크센터, 참여연대, 천주교인권위원회, 한국진보연대),  
**국정원‘프락치’공작사건대책위원회**(국정원민간인사찰피해대책위원회, 다산인권센터, 민들레\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, 민주노총, 민중공동행동, 진보네트워크센터,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, 인권중심사람, 천주교인권위원회, 한국진보연대, NCKK 인권센터)
- 기자회견 순서
  - 사회: 참여연대 행감감시센터 이은미 팀장
  - 여는발언: 박승렬 NCKK 인권센터 대표, 목사
  - 고소 고발 취지 설명 : 오민애 국정원‘프락치’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간사, 변호사
  - 고소인(피해자) 발언 : 최승제 통일경제포럼 운영위원장
  - 마무리 발언 :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, 변호사(국감넷)
  - 고소·고발장 접수
- 문의 :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-723-5302

3.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. 끝.